

# 부영 회장 고발…공정위 대기업 제재 신호탄

공정위 “계열사 현황자료 10년 넘게 허위 작성”

부영 측 “친족 지배회사 인지 못해…고의성 없다”

부영그룹의 총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오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제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임명되기 나흘 전인 지난 9일 1소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자신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조카와 처제 등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는 길게는 14년까지 지속됐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 시효가 5년인 탓에 공정위의 제재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 회장은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소유 현황 자료를 신고할 때 명의를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차명 주주로 현황이 신고된 계열사는 (주)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부인 나 모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분을 5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 외 나머지 5개사는 이 회장의 지분을 약 50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본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장기간 계속된 점, 차명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한 것일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차명주주 제제로 대기업집단 지정여부나 계열사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경제적 실익도 취한 것 없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 정부와 다른 세월호 해결  
광양항 국제물류 허브항으로”  
김영춘 해수부 장관 목표 찾아

김영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 다음날인 17일 목포신항과 광양항을 찾아 미수습자 수습과 국제 복합물류 허브항으로 육성을 각각 약속했다.

김 장관은 17일 오전 목포신항의 미수습자 가족과 면담을 하고 “지난 정부와 전혀 다른 자세로 세월호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은 해수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안전하게 빨리 미수습자를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색 일정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화물칸 진입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한 뒤 전체 조사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는 다음달 초부터 화물칸 수색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세월호 유가족들과도 만나 “안전하게 빨리 미수습자들을 찾으려면 유가족 동의 아래 수색을 위해 구멍을 좀 더 크게 뚫어 작업하러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 김 장관은 여수와 광양항을 찾아 물류 거점 복합항만인 광양항을 배후 산업단지와 연계한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양식어민들에게는 적조 방제 대책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광양항은 컨테이너 물류 거점이자 제철, 석유화학 등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산업 항만으로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며 “광양항을 배후 산업단지와 연계하는 국제 복합물류 허브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관정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추경 1번은 가뭄대책비…영산강 4지구 개발 조속 추진을”

이낙연 총리 호남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목포신항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면담 등을 위해 호남을 찾는데 이어 18일 가뭄 피해가 심각한 무안군 삼향읍을 찾았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관정 개발 현장을 찾아 가뭄 상황 보고를 받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1번은 가뭄대책비”라며 “가뭄 예산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까지 호남 지역은 가뭄대책비를 지원받지 못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뭄 대책 예산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며 “남은 예비비로는 농민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기획재정부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경 가뭄 지원 예산을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배려하고, 급한대로 불을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가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전남 4개 군의 가뭄 상습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영산강 4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지원(광주일보 6월 9일자 5면)을 지적한 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공사 지원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니 육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무안 방문을 마친 이 총리는 신안군 압해면의 저수지 준설 현장을 찾아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 정부 첫 대법관 후보 프로필

상고 출신…시국사건 소신 판결·약자 보호

조재연 대법관

고된 역경을 이겨내고 ‘주경야독’으로 법조인의 꿈을 이룬 입지전적 인물이다. 전두환 정권시절인 1985년 사회 고발적인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국회 야당의원의 숙기록을 ‘민주정치 1’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사회과학 출

판사 일월서각 대표가 즉심 재판에 끌려오자 무죄를 선고하는 등 시국사건에 소신있는 판결로 유명하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한 조 변호사는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연대보증 자동 연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끄는 등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썼다. ▲강원 동해(61) ▲덕수상고 ▲사법연수원 12기 ▲서울형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광주 중앙여고 출신…첫 여성 부장판사 지내

박정화 대법관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에서 사회적 약자의 법익을 보호하면서도 이론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적합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냈다는 점

에서 대법관이라는 중책을 맡기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 해남(51) ▲광주 중앙여고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제30회(사법연수원 20기)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5세 이하 월 10만원…‘아동수당’ 내년 전격 도입

정부가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아동수당 역시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과 국정기획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단계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아동수당을 내년에도 즉각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폐(상품권)로 지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다만 아동수당 도입 문제에 대해 “이런 방향(내년부터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박지영기자 jkpark@연합뉴스

‘독일 통일 주역’ 헬무트 콜 전 총리 별세

독일 통일의 주역 헬무트 콜이 87세 일기로 세상을 작별했다.

독일 현지 언론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중도우파 기독교민주당의 역사적, 상징적 정치인인 콜 전 총리가 루트비히스하펜 자택에서 작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독일 역대 최장 집권기간이던 1982년부터 1998년 사이 분단된 동, 서독의 통일을 이끌고 유럽통합과 유럽 단일 화폐인 유로화 도입의 근간을 닦았다는 점에서 ‘통일 총리’, ‘통합유럽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발탁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구동훈 신생당당 ‘민주출발(또는 민주약진)’의 대변인이던

메르켈을 발탁해 1990년 통일이후 통독초대 내각의 여성부 장관으로 가용한 데 이어 1994년에는 환경부 장관으로 내세움으로써 초고속 성장을 도왔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실거주지파악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방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복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암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금호동 6층 건물(보증금 2,4억 월1,500만)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흑석동 5층 건물(보증금 3,4억 월1,500만) 40억원  
• 하남동 3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460만) 매 25억  
• 쌍암동 4층 건물(보증금 1,3억 월 1,400만) 매 29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450만) 매 35억  
• 신가동 4층 건물(보증금 6천만 월 520만)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 지  
• 용전동 생산복지, 대로전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복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복지 창고용지 도로접 990㎡ 5억원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광산구 대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심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치대농음, 남향)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3천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2017학년도 제2학기  
동 강 대 학 교  
전임교수 초빙

초빙분야 및 인원

| 재용 구분       | 학 과                | 전공분야                | 인원 | 비 고                                                          |
|-------------|--------------------|---------------------|----|--------------------------------------------------------------|
| 계약제 전 임 교 원 | 기계자동차학과<br>기계자동차학과 | ◆기계공학<br>- 자동차 및 제어 | 0명 | ◆초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br>◆해당분야 실무 경력자 우대<br>◆정부 및 기업 연구과제 수행 경험자 우대 |

접수기간

2017. 6. 29(목) ~ 7. 3(월) 15:00까지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접 수 처

(6120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동강대학교 사무처 행정지원팀 ☎ 062)520-2211

세부사항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kc.ac.kr) 교수초빙 공고 참조

동 강 대 학 교

(6120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